

#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A suggestion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정진일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Chung, jun-il./ Information  
Culture Center of Korea President.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위한 정치행정적인 골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한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없다.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개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한 재정자립기반 확립과 아울러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진정한 지방화는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의식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지

난 30여년간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발전정책의 결과 행정, 경제, 교육, 복지 등 국가자원과 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은 국가자원의 낭비와 국토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과밀, 주택부족, 교통혼잡, 공해 등의 대도시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반면에 지역사회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이탈, 산업기반의 미약, 교육, 복지시설의 부족 등으로 저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통하여 지방화시대

를 열게 된 것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사실 지방화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전략과도 백락을 같이하고 있다. 언뜻 세계화와 지방화는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조화를 이루는 개념인 것이다. 21세기를 앞두고 국가 간의 경쟁력은 중앙의 성장 잠재력 보다는 지방의 성장 잠재력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며 지방화의 성패 여부가 곧 국가발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화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는 또 한번의 정치행정의 실험무대로 끝나서는 안되며 세계화시대에 맞는 진정한 지방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역행정은 물론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전략들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정보화(Regional Informatization)”이다. 지역정보화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여 지역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지역단위에서의 행정, 산업, 사회, 가정분야의 총체적인 정보화 추진을 의미한다.

지역정보화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세계적인 조류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의 도입이 없이는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컴퓨터와 통신이 사회의 핵심 하부구조를 이루게 되는 정보사회로 전환될 것이며 따라서 앞으

로는 정보화의 수준이 곧 한 나라의 국력을 재는 척도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 의 경쟁력 또한 지역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 추진에 국가적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지역정보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정보화가 지역사회발전에 미치게 되는 영향과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 성패의 관건이 될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지역산업체의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육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지역 산업체의 정보화는 비용절감과 생산성 증대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한편 신세기 산업으로 성장속도가 큰 정보산업의 지역유치 및 육성은 지역의 경제 규모와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경제성장을 유도할 것이다.

둘째, 지역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지방 행정사무와 민원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미 국가 행정전산화의 추진과

정에서 보았듯이 행정의 전산화는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가져다 주며 민원업무의 일회방문처리(One-stop service)와 24시간 서비스(Nonstop service)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행정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생활 및 복지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복지 분야의 정보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문화적인 혜택이 빈약한 지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원격교육, 원격의료를 실시함으로써 대도시의 교육,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유산을 공유함으로써 대도시와 동일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방범, 방재분야의 정보화와 교통, 환경분야의 정보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는 국가의 중추관리기능과 산업 및 인구의 지역분산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다극분산형의 국토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이 지니고 있는 공간극복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 전국적으

로 구축될 경우 행정, 산업 및 교육시설의 지방화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보화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지역단위에서의 정보화 추진기반은 매우 미약하며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수도권과 지역간에는 정보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지역간의 정보화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만약에 현존하는 지역간의 정보화격차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고도경제성장전략의 결과로 야기된 지역간의 불균형 성장과 발전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역정보화는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전략의 핵심기반으로서 지방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발전전략이다. 따라서 지역정보화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에 따른 뉴미디어의 보급,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국가 사회 정보화환경이 활발히 조성되고 있고 정치사회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은 상당히 성숙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지역정보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지역정보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보통신기반의 정비와 선도시범 사업의 추진, 재정지원 등의 조정 지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정보화는 국가의 중·장기 계획 및 제반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발전 계획이나 국토종합발전계획 등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개발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정보화는 이러한 지역개발과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정보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화의 기술적 추진력 (Technological Push)과 사회적 견인력 (Societal Pull)이 상호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방향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정보화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위지역의 정보화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화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가 중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전국적 차원에서 정

균형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지역정보화 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정보화 추진시에도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보화마인드 조성과 정보통신이용에 대한 교육이 없이 단순히 정보기술과 뉴미디어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지역정보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지역정보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향

상에 제1차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민업무와 밀접한 행정업무 및 주민복지업무의 정보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역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분야의 정보화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추진체제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간의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겠다.

첫째, 지역정보화를 21세기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하기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전국 기초단위 및 광역단위 지역별로 1개소씩 지역정보문화관을 설립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지역정보문화관은 지역공공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컴퓨터 및 정보통신 이용교육, 초고속정보통신시범전시, 정보화추진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정보화운동의 종합거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고 정보화시범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정보화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우정성, 통산성, 농림수산성 등 중앙성청이 정보화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텔리토피아 구상과 같은 지역정보화 모델도시 유형에 대한 연구가 여러번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까지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정보화 모델도시 조성은 지역간의 정보화 경쟁을 유발하고 유사지역간에 정보화 추진의 방법론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확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란 점에서 반드시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정보화 추진의 실천적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화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전개하는 것도 지역정보화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정보통신기반을 확충하고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정보통신기반은 지역정보화의 1차적인 기본조건이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비롯한 고도정보통신기반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역균형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외

에도 지역단위별로 각자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위성통신망, CATV망, PC통신망 등을 구축하는데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의 정보문화화 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을 위한 조항을 명시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형성없이는 지역정보화는 요원한 일인바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문화 홍보 계몽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정보화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정보화와 지방화 나아가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적 과제이다. 따라서 이제 막 출발점에 서있는 지방화시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의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를 국가발전운동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DIC**

특집

- ▶ 지역정보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이무영
  - ▶ 지방화와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역할 / 최두진
  - ▶ 지역정보화와 지방자치의 세계화 전략 / 배해영

